

01 교회소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전 세계 만민을 향한 비전이 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응답받기 위한 공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칙에 맞아야 한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 알아본다.

03 기획특집

시간과 세월을 아끼자!

천국을 침노하는 지혜로운 성도라면 분초를 아끼며 신부단장에 힘쓸 것이다. 금 같은 세월을 아끼는 비결을 소개한다.

04 간증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고 있어요”

난소종양이 사라진 최선자 권사와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삶 속에 하나님 사랑이 넘친다는 영국 율리아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702호 2015년 9월 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기도는 응답이 쏟아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GCN 방송으로 세계 곳곳에서 동참할 수 있는 기도회



영적인 호흡인 불같은 기도로 건강한 크리스천이 될 때라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GCN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는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있어서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뿐 아니라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시청자들이 매일 밤 함께하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성결한 마음을 이룬 빛의 열매로 나오기 위해 하늘 보좌를 올리는 믿음과 사랑의 뜨거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말씀한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개척 때부터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합심해 부르짖어 기도해 왔다.

특히 교회 부설 만민기도원에서 주관하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 자협력교회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는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루는 원동력이 됐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됐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찬양과 함께 진행되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전 세계 영혼 구원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 성전건축, 주의 종과 일꾼, 선교사 그리고 나라와 민족, 자신의 마음의 소원 등을 놓고 기도한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예배가 있는 금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9시부터 11시 40분(토, 일요일은 11시)까지 진행된다.

해외 선교사나 성도들은 GCN 방송 생중계 혹은 시차 관계로 녹화된 방송을 보며 기도하고 있다. 미국 인터내셔널만민교회 크리스털 아세베도(32) 성도는 “다니엘철야에 참석하며 기도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직 쉽지 않지만 저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기엔 인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사이야이 세라우(22) 자매는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이 변화되니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 물질 축복이 임했고 고질적인 다리 통증도 치료받았습니다. 다니엘철야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 기쁨이고 생명이기도 하지요.”라고 고백했다.

교회 개척 이후 오직 기도로 헌신해 온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은 다니엘철야 인도 시, 단 아래로 내려가 성도들의 기도를 직접 돕는다면 감동적인 멘트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교회 남구역장연합회 회장 이상원(48) 장로는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분야를 알게 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또 예배 인도나 만남, 심방 등을 놓고 기도하면 내용을 응답해 주셔서 사명감도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설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갈 때에도 깨우침을 주시니 즐겁습니다.”라며 감사해했다.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아자리야(20) 형제는 “다니엘철야 때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기도와 멘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찬양을 부르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더욱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샘솟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니 성령님이 저의 말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십니다. 또한 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어머니가 당뇨병과 허리 통증을 치료받으셨고, 가정이 화평해지고 복음화가 됐으며,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특히 일 년에 두 차례 전·후반기에 열리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새신자나 평소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함께해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몽골만민교회 슈렌체체(72) 성도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를 통해 수십 년 전 가족에게 잘못된 일이 떠올라 회개했는데 그 뒤 몸의 여러 이상 증세를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도 느낄 수 있었지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올 봄에 열린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걷기조차 힘든 다리 통증 등을 치료받은 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차원인 ‘온 영의 흐름 가운데 9월 7일부터 ‘열매’(살전 5:23)를 주제로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개최된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영적 성장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7:4)

# 응답받기 위한 공의

곱에게 집에서 키운 염소를 잡아오게 해 그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들여보내므로 아버지 이삭은 그를 에서로 착각해 축복하지요(창 27:27-29).

야곱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간 뒤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옵니다. 그제야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잘못 축복해 준 것을 알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축복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며 방성대곡을 해도 이삭은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고백합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임해 야곱은 거부가 됐고, 그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했기 때문인데, 야곱은 축복 기도의 힘을 믿고 사모함으로 기도를 받았으며 그 뒤 믿음의 연단을 통해 축복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마음과 행함은 야곱과 달랐습니다. 팔족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등 영적인 사모함이나 믿음의 행함도 없었지요.

비록 방법은 온전치 못했지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축복을 받기까지는 연단이 따랐지요. 나그네로서 외산촌 밑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을 내보였고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해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받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빌어 주는 축복은 결코 허무하게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장 받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했지요. 반대로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 이 있거나 선포한 말씀이 성취됐다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또는 축복 기도대로 될 것을 믿되 변함없이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의의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별미를 드려야 합니다

‘별미’란 특별히 좋은 맛 또는 그 맛을 지닌 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신속히 받으려면 하나님께도 이런 별미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 기도가 즉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별미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27장 4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해서 야곱보다 더 사랑했고, 마음껏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빌어 준다고 그 복이 무조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함을 알기에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 응답받고자 할 때도 반드시 심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심는 행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게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한 대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19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자신의 사역을 도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빌어준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별미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사랑과 정성을 내보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바로 별미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계명을 지키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생명 다해 지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고자 했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수고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넘치도록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과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별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시간과 물질, 달란트 등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리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전도하고 심방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했으니 열심히 찾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 안에서 변화되고 응답과 치료를 받으며 축복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별미, 곧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육 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지자, 사도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이나 나라, 민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있는데, 이미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뤄졌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사 55:11).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무조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칙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공의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건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1. 한 번 선포된 축복의 말씀과 기도의 위력을 의심 없이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은 당시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이에 사랑하는 아들 에서, 곧 야곱의 형에게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에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다녀오실 때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시간’이란 결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금은보화를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되 분초를 아끼며 신부단장에 힘쓸 것이다.

이처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본다.

<p><b>하나</b></p> <p>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이다</p>	<p><b>둘</b></p> <p>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다</p>	<p><b>셋</b></p> <p>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다</p>
--	--	---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다. 여기서 술이란 실제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리에 어긋나고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의미한다. 정도에서 벗어나 치우치는 방탕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치 않기에 새 술 곧 성령에 취해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믿는 자들을 미혹해 사망에 빠뜨리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미혹당하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롬 8:26).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피곤함과 연약함에 빠져들게 되니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곤고함과 게으름, 나태함으로 치닫게 된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쉬지 말고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

성령을 기름에 비유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등불에 기름을 공급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면 기름 없는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없는 것과 같이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타협하게 되고 죄악으로 물들어 버림으로 결국 구원과 멀어질 수도 있다(골 4:2; 벰전 4:7; 마 26:41).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골 3:16).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행 2:46).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히 10:25).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모인다는 것은 정을 나누며 회식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면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부흥을 이룰 뿐 아니라 주님을 닮아 능력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9~20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리며 진리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주 안에서의 모임이다.



이러한 모임이 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고, 힘 없는 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줌으로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니 모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모임을 갖되 행사 자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영혼 구원과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소홀한 것을 볼 수 있다. 영적으로 근본 목적에 맞게 모임을 이끌되 이를 통해 생명을 낳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부흥이 됐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말씀한 대로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복종하라.” 하면 싫어하고 무조건 남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진리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진리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적인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욕심이나 자존심, 교만함,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론을 깨뜨려야 어린 소자라도 마음 중심에서 섬길 수 있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또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비롯해 시기, 다툼, 거짓 등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을 벗어 버릴 때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수 있다.



이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어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축복장이라 불리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 순종함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하나님의 빛이라 칭함을 받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사자 밤이 되어 죽을지언정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은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고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와 같이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해 가면 여호와 아례의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시 119:165).

<p>주요 프로그램 안내</p> <p><b>SEPTEMBER 2015</b></p> <p>09.06~09.12</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신의 의미</li> <li>■ 선</li> <li>■ 응답의 공의</li> <li>■ 일곱영 1</li> <li>■ 창세기 강해 1-5</li> <li>■ 천국 4-8</li> <li>■ 십자가의 도 7-13</li> <li>■ 심계명 2-6</li> <li>■ 죄의 뿌리와 성결 1-2</li> <li>■ 요한계시록 강해 31-35</li> <li>■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li> </ul>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적인 사랑 1 (이수진 목사)</li> <li>■ 교만 1 (이미영 목사)</li> <li>■ 영의 세계 43 (이희선 목사)</li> <li>■ 마음 5 (신동초 목사)</li> <li>■ 열재앙 8 (정규영 목사)</li> <li>■ 위로부터 난 지혜 (김수정 목사)</li> <li>■ 사랑의 깊이 (이재정 전도사)</li> </ul>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2</li> <li>■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40</li> <li>■ 창조와 과학 14</li> <li>■ 내 마음의 찬양 17</li> <li>■ 옛날 옛적에 6</li> <li>■ English 11</li> <li>■ 즐거운 요리 21</li> <li>■ 모두 드려요 34</li> </ul>	<p>해외성회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연합대성회 2</li> <li>■ 믿음으로 걸어온 길 6</li> <li>■ 회상 (시즌2) 2</li> </ul>
---	---	--	--	---



# “7.62cm의 난소 종양이 사라졌어요!”

지난 5월 11일,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와 대장내시경 검진을 했는데 결과는 가능성 위장장애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질 초음파와 복부 CT 촬영 결과, 왼쪽 난소에 7.62cm 크기의 종양이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종양이 매우 커서 당장 수술할 것을 권했지만 저는 영적인 문제를 찾아 신속히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 뒤,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됐지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착각과 교만, 섬기기보다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불편하게 생각한 일등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4일, 화장실에 갔는데 맑은 선홍색 피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증표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치료의 과정으로 생각했지요.

다음날 6월 5일, 교회 행사가 있어서 봉사를 하는데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마침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생신을

그 순간 저는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변화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처럼 놀랍게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능성 위장장애도 점차 호전됐지요. 할렐루야!

더욱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해 감사치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니 제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남편의 수고와 배려 속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 할 수 있음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감사했지요. 또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님, 양 떼를 위해서라면 생명이 아끼지 않으시는 목자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6월 28일에 있었던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기관장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사랑의 마음을 꼭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제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 “권능의 목회자를 만나 응답과 축복이 넘쳐요”



율리아 성도 (39세, 영국 런던)

2008년 어느 날,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두 차례씩 방송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리게 됐고, 다른 기독교 채널 CNL 방송을 통해서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믿음이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한국 만민중앙교회의 홈페이지를 찾아 이 목사님의 다양한 설교와 신앙서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영적인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 뒤 저희 가족은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아침 7시에 저녁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설교 말씀이 끝송이 같아 행복하기만 했지요. 매일 오후 1시에는 인터넷으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함께하고, 인터넷이나 DVD로 다른 설교들도 대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과 의견이 안 맞으면 자주 말다툼을 했는데 이제는 상대를 이해하게 됐지요. 그래서 저를 변화시킨 생명의 말씀과 복된 소식이 가득한 영어판, 러시아어판 ‘만민뉴스’를 즐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저희 가족은 이민 후 4년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당회장님의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했지요. 예전에 드리지 못한 십일조까지 계산해 드리며 만민중앙교회로 기도 제물을 보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 그 결과 신기하게도 영주권이 곧바로 나왔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간절히 사모하던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일정 중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권능의 목회자,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지요.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남편 조성익 성도, 최선자 권사 (47세, 2대대 13교구), 아들 영오 형제.

**기도받기 전**  
▲ 좌측 난소에 7.62cm 크기의 낭종이 보이고 있다.

**기도받은 후**  
▲ 좌측 난소만 보일 뿐 낭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맞아 예배를 드린 후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일이 악수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악수를 했지요. 전날부터 시작된 맑은 선홍색 피가 5일간 지속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오십견으로 인해 왼팔을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통증도 사라지고 자유롭게 움직여졌지요.

그 뒤 저는 이복님 원장님과의 상담을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 ‘영적인 사랑’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들으며 작정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니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요. 하나하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월 17일, 몸이 많이 회복된 것을 느끼며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는데, 7.62cm 혹이 1.95cm로 줄어들어 있었지요.

죄송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담대히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지요.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계수련회 은사집회 시 온전히 치료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리고자 3일 금식 기도로 준비했지요.

7월 30일에는 간증을 위해 병원 검진 결과를 받으려고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 놀랍게도 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결국 8월 3일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마음의 소원대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기간 내내 하나님 사랑 안에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처럼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좋으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현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화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4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월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334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51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사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들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곡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8163-153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관내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연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